

국내 PCB 시장“ 양호”

수출 25% 증가 1억100만달러 ... 수입은 4.5% 증가

PCB(인쇄회로기판: Printed Circuit Board)업계의 93년 상반기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PCB기업들은 상반기중 미국, 유럽지역으로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5.0% 증가한 1억1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 홍콩으로의 수출이 줄어든 반면 주수출시장인 미국, 싱가포르 및 유럽으로의 수출이 각각 54.8%, 17.5%, 59.0% 증가세를 보인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4.5%증가한 4700만달러에 그쳤는데, 이는 주수입국인 일본에서의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이 64%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한 세트기업들의 수출회복에 힘입어 로컬수출은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PCB생산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200여개에 이르는데 코리아씨키트, 대덕산업, 한일씨키트, 새한전자, 우진전자, 대덕전자 등 기존의 6개 기업과 삼성전기, 금성통신 등이 전체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PCB수급추이		(단위 : 생산, 내수 : 100만원, 수입, 수출, 로컬 : 1000달러,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공	생 산	275,609	▽3.9	337,017	22.3	378,028	12.5	490,000	29.6
급	수 입	67,826	▽1.8	98,922	18.5	89,941	▽9.1	95,000	5.6
수	수 출	78,807	8.3	147,959	48.6	174,221	17.7	220,000	26.3
로	로 컬	215,235	▽9.9	243,002	12.9	230,867	▽5.0	310,000	34.3
요	내 수	60,989	5.0	50,574	▽17.1	64,980	28.5	70,000	7.7

그밖의 기업들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생산구조에 있어서도 중소기업들은 기술력과 자금력의 취약으로 비교적 단순조립 품목인 단면 PCB생산에만 편중되어 있으며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다층기판은 상위기업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PCB시장은 산업용 및 가정용 세트제품의 경박단소, 첨단화 추세에 따라 단면, 양면에서 다층제품(MLB)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PCB는 인쇄회로원판 위에 전기배선을 인쇄하고 화학약품으로 부식시켜, 전자제품에 소요되는 많은 부품들간의 회로를 연결시켜 주는 회로배선판으로 인체의 신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같은 PCB는 절연재료에 따라 페놀, 에폭시, 세라믹PCB 등으로 구분되며, 용도별로 가정용 혹은 산업용 PCB로, 회로판의 집적도(총수)에 따라 단면, 양면, 다층PCB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되어 진다.

93년 연간 PCB직수출은 미국의 컴퓨터산업의 회복세로 PCB제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엔고에 따른 가격경쟁력 회복으로 동남아 및 유럽지역으로의 물량증가가 예상되어 26.4%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로컬수출은 34.8%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존 PCB기업 및 신규기업의 생산확대로 생산은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저널 1993/11/29>